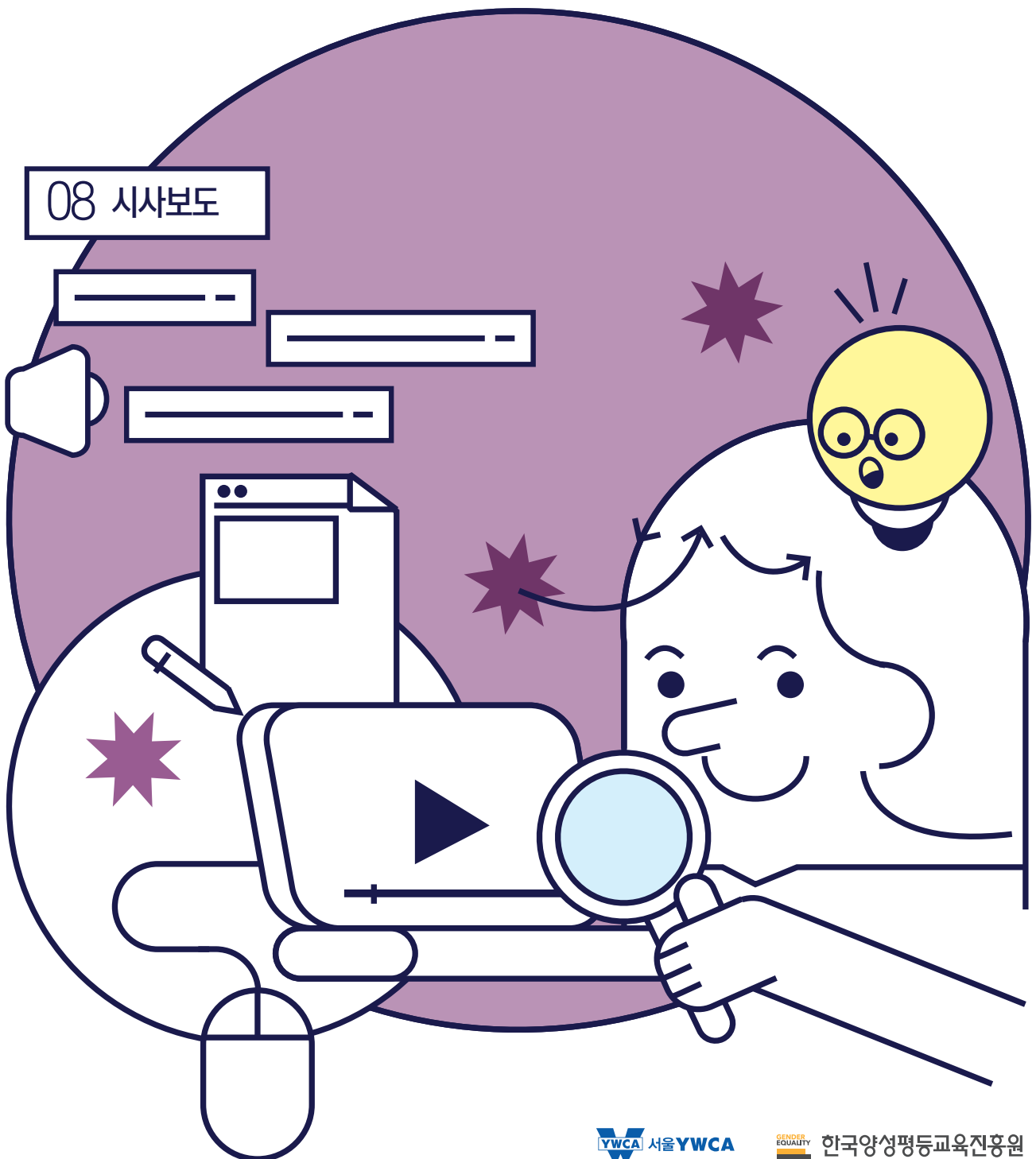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8 시사보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CONTENTS

06	들어가며
07	결과분석
07	양적분석
14	질적분석 : 성평등적 사례
15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17	나가며
1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시사보도 프로그램 내용분석 보고서

2020. 09. 01 - 09. 21

모니터링 대상

22

개 프로그램

방영분 중 각 3회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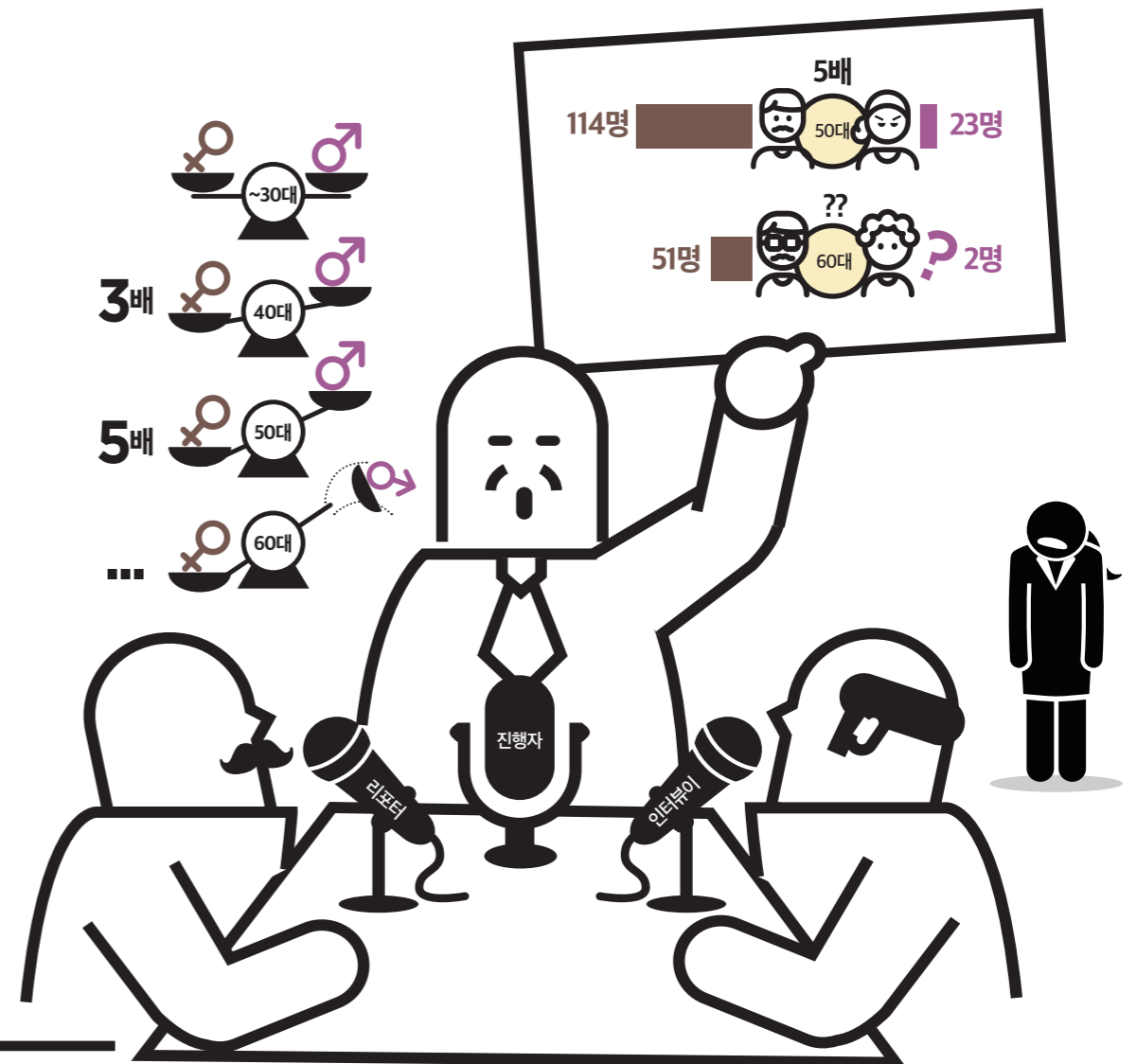
*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3주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지만,
월~금까지 주 5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 요원이 임의로 모니터링 기간 내 3회분을 선정했다.
* 모니터링 기간 내 결방 및 프로그램 개편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방영 회차를 모니터링에 포함하였다.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tvN
모니터링 인원 : 6명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시사 직격	금/22:00	
2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월~목/22:50	
3			시사기획 창	토/20:05	
4			자널리즘 토크쇼 J	일/21:40	
5			생방송 심야토론	토/22:30	
6			KBS2	제보자들 ¹	수/20:30
7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일/20:25
8			MBC	PD 수첩	화/22:40
9				100분 토론	화/11:35
10		SBS	궁금한 이야기 Y	금/20:55	
11			뉴스스토리	토/08:00	
12			그것이 알고싶다	토/23:10	
13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목/23:00	
14	종합편성 채널	JTBC	밤샘토론 ²	매월 둘째, 마지막 금 /24:20	
15			표창원의 사건반장	월~금/15:45	
16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월~금/17:30	
17			신통방통	월 09:00/ 화~금 09:05	
18			보도본부 핫라인	월~금/13:00	
19			사건파일 24	월~금/14:30	
20			채널 A	김진의 돌직구쇼	월~금/09:20
21				토요 랭킹쇼	토/12:10
22			MBN	판도라	월/21:30

1 <제보자들>은 8월 26일이 종방이라 모니터링일 기준 최근 3회차 방영분 모니터링

2 단 매월 둘째, 마지막 주에 방영하는 <밤샘토론>의 경우 8월 28일과 9월 11일 방영분 모니터링



01 들어가며

유네스코는 세상에 대한 상을 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고려할 때, 픽션보다 보도 프로그램처럼 사실을 기반에 두고 있는 프로그램에서의 젠더 묘사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³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은 사회 구성원, 인간의 경험과 행위, 시각과 관심을 재현함에 있어 성별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캐나다 방송 심의 규정집에 따르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 남성과 여성은 광범위한 직업 및 의사정책 결정 역할에서 동등하게 출현해야 한다.⁴ 그렇다면 한국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젠더 묘사는 어떠한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비율로 출현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2020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의 22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3 방송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p48

4 심미선 외,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p33

02 결과분석

출연자는 토론 프로그램과 추적보도 프로그램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 패널을 중심으로, 추적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 리포터,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하였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적 현상 분석, 정보 전달, 사회 이슈에 대한 해법 모색 등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주체는 진행자, 추적보도를 이끄는 리포터 그리고 전문성을 더해주는 역할의 전문가 인터뷰이라고 보았다.

출연자 분석 대상		출연자 분석 제외
토론 프로그램 - 진행자 - 패널	추적보도 프로그램 - 진행자 - 리포터(기자) - 전문가 인터뷰	- 보도 자료화면 출연자 - 스케치 화면의 지나가는 사람들 - 사건 관련 인물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마을사람들) - 재연배우 - 시민 인터뷰

1 출연자 성비

2020년 9월, 22개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출연자 성비는 여성 21.3%(71명), 남성 78.7%(262명)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2019년에 진행했던 시사보도 모니터링에서 여성 24%(76명), 남성 76%(240명)의 성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시사 프로그램 속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개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사직격>,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생방송 심야토론>, <그것이 알고싶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남녀 성비 차이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생방송 심야토론>은 모니터링 기간 내내 여성 출연자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전체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1	시사직격	1	12
2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	11
3	시사기획 창	9	17
4	저널리즘 토크쇼 J	2	9
5	생방송 심야토론	0	14
6	제보자들	3	8
7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5	16
8	PD 수첩	4	10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9	100분 토론	2	7
10	궁금한 이야기 Y	6	2
11	뉴스토리	4	17
12	그것이 알고싶다	3	28
13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	21
14	밤샘토론	3	6
15	표창원의 사건반장	5	13
16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3	12
17	신통방통	2	14
18	보도본부 핫라인	5	7
19	사건파일 24	4	12
20	김진의 돌직구쇼	2	8
21	토요 랭킹쇼	2	7
22	판도라	2	11
	합계	71(21.3%)	262(78.7%)

모니터링 3주간의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았고(41.1%) 40대(25.8%)가 그 뒤를 이었다. 여성과 남성은 30대까지는 비슷한 수로 등장했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40대에는 남성이 약 3배 더 등장했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여성은 23명, 남성 114명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60대 이상의 남성이 53명 등장할 때 60대 이상 여성은 단 2명 등장했다.

이 또한 작년에 진행했던 시사보도 모니터링과 같은 결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노년 여성은 '지식 전달'이라는 역할에 있어 완전히 배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50대 남성이 전체 출연진의 1/3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 성별과 연령대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식형성의 장이 과도하게 남성 중장년 중심으로 이뤄질 때, 청년세대와 노년 여성은 정치 담론 형성의 장에서 배제된다.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5
모자이크되어 외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전화연결로 목소리만 나올 경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⁵	합계
전체 인원	0 (0.0%)	2 (0.6%)	48 (14.5%)	86 (25.8%)	137 (41.1%)	53 (15.9%)	2 (0.6%)	5 (1.5%)	333 (100.0%)
여성 (전체%)	0 (0.0%)	2 (0.6%)	22 (6.6%)	22 (6.6%)	23 (6.9%)	2 (0.6%)	0 (0.0%)	0 (0.0%)	71 (21.3%)
남성 (전체%)	0 (0.0%)	0 (0.0%)	26 (7.8%)	64 (19.3%)	114 (34.2%)	51 (15.3%)	2 (0.6%)	5 (1.5%)	262 (78.7%)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진행자(내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로 구분하였다. 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7.2%(24명), 여성이 2.4%(8명)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았다. 그러나 주요 진행자로 여성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상당수였는데, 이는 이후 '성별 진행자 역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패널의 경우 남성이 29.7%(99명), 여성이 6.3%(21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5배 많았다. 전문가 인터뷰이 또한 남성이 35.4%(118명), 여성이 9.3%(31명)로 남성이 약 4배 많아, 전체 출연자 성비를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 역할 단위 / 명

	진행자 (내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	합계
전체 인원	32 (9.6%)	120 (36.0%)	32 (9.6%)	149 (44.7%)	333 (100.0%)
여성	8 (2.4%)	21 (6.3%)	11 (3.3%)	31 (9.3%)	71 (21.3%)
남성	24 (7.2%)	99 (29.7%)	21 (6.3%)	118 (35.4%)	262 (78.7%)

4 성별 진행자 역할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 성비는 남성 75%(24명), 여성 25%(8명)으로 남성 진행자가 여성에 비해 3배 많았다. 남성이 단독 또는 두 명의 남성이 주요 진행자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은 총 14개였으나 여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뉴스토리>, <밤샘토론> 단 2개뿐이었다. 전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토론을 적절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단독으로 부여받는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많은 것이다.

성별 진행자 역할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1 시사직격	0	1
2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0	2
3 시사기획 창	1	1
4 저널리즘 토크쇼 J	0	1
5 생방송 심야토론	0	1
6 제보자들	1	1
7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0	2
8 PD 수첩	0	1
9 100분 토론	0	1
10 궁금한 이야기 Y	1	1
11 뉴스토리	1	0
12 그것이 알고싶다	0	1
13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0	2
14 밤샘토론	1	0
15 표창원의 사건반장	1	1
16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1	1
17 신통방통	0	1
18 보도본부 핫라인	0	1
19 사건파일 24	0	2
20 김진의 돌직구쇼	0	1
21 토요 랭킹쇼	1	1
22 판도라	0	1
합계	8(25%)	24(75%)

남성 진행자를 보여주는 장면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 2020.9.3.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0.9.6.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202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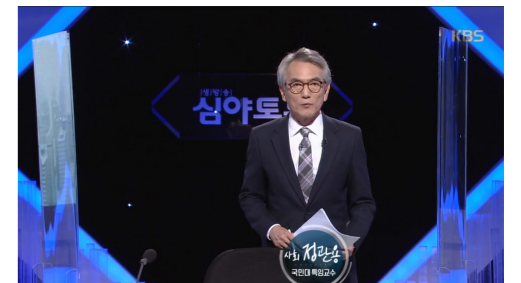
시사직격 / 2020.9.4.



저널리즘 토크쇼 J / 2020.9.6.



생방송 심야토론 / 2020.9.5.



PD 수첩 / 2020.9.1.



100분 토론 / 2020.9.10.



5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78명, 23.4%), 언론인(67명, 20.1%)과 법조인(38명, 11.4%)이 뒤를 이었다. 직업군별 성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직업군은 비평가/평론가였다. 전체 8명의 비평가/평론가 모두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약 4배, 교수는 약 7배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다. 이것이 실제 특정 직업군의 성비 불균형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기에는 비평가/평론가로 등장한 여성이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며, 실제 직업군의 성비와 관계없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특정 직업군의 실제 성비와 미디어 재현 성비의 비교는, 만약 실제 여성이 10%의 직군인 경우 미디어에서 여성 1명, 남성 9명의 성비로 등장해야 한다는 논지가 아니다. 미디어 재현의 성비가 직업군별 실제 성비와 다르다는 지점은 분명 문제지만,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성비 재현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질 때 지식, 정보, 공적인 것이 중년 남성의 역할로만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다. 지식, 정보, 정치는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시각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남성이 과대 대표되었을 때 남성의 시각이 시사를 다루는 보편이 되기 쉬우며, 남성중심적 주장과 의견이 대표성을 지닌 보편적 의견으로 다뤄지게 된다.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성	22	0	7	10	8	1	1	1	0	0	0	0	0
남성	45	8	29	68	30	6	7	6	0	3	0	0	0
계	67	8	36	78	38	7	8	7	0	3	0	0	0

직업 번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9	계
여성	0	0	0	0	4	0	0	9	0	1	6	1	71
남성	0	1	0	0	0	0	0	25	0	9	21	4	262
계	0	1	0	0	4	0	0	34	0	10	27	5	333

※직업분류번호
 ① 언론인(기자, PD 등) ② 비평가/평론가 ③ (전·현)국회의원 ④ 교수 ⑤ 법조인 ⑥ 공무원 ⑦ 경찰, 형사
 ⑧ 방송인/전문진행자 ⑨ 개그맨/코미디언 ⑩ 배우 ⑪ 가수 ⑫ 모델 ⑬ 학생 ⑭ 작가
 ⑮ 자영업자(사장/대표 포함) ⑯ 일반시청자 ⑰ 요리사/요리연구가 ⑱ 상담사 ⑲ 주부 ⑳ 운동선수
 ㉑ 의료계종사자 ㉒ 회사원 ㉓ 종교계종사자 ㉔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㉕ 기타_____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2건, 성차별적 내용은 3건이 확인됐다. 성차별적 사례들은 젠더(성별) 고정관념 조장 2건,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사례 1건, 외모에 대한 평가 1건이 발견되었다.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을 중심으로	2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외모에 대한 평가	1
합계		2	합계	3

1
성평등적 내용

최근 조두순 출소 보도 관련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 수사과 기소, 재판 과정 자체에서 시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이지만, 한 칼럼에서 지적하듯 사법에 대한 정당한 시민들의 공분을 이용해 언론사들이 범죄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당화 사유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다.⁶ 아래 사례들은 성범죄 보도시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며, 성범죄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었다. 이는 최소한의 성범죄 보도 기준을 준수한 것이지만 선정적인 성범죄 보도가 범람하는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의 보도 기준을 준수한 사례들을 성평등한 사례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6 [언론인권칼럼] 언론은 조두순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송현순 작성,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2020년 12월 24일, http://www.presswatch.or.kr/board/view.asp?gopage=1&bi_bidx=1037

JTBC / 9월 11일(1473회) 표창원의 사건반장



“우리 법이 피해자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왜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중략) 물론 가해자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가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비교한다면, 그쪽이 훨씬 크다.”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다루며 피해자 및 지역민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조심해야 할 책임을 지우는 한국 법적 제도를 비판한다. 보호감찰관이 모든 범죄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인력부족의 문제를 짚는다는 현행법의 허점도 지적한다.

9월 22일(1480회)



1950년대 중반 ‘혼인빙자간음죄’를 저지른 박인수 사건을 다루며 당시 1심에서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내려진 무죄 선고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불평등이 있었고, 이것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로 이어졌음을 비판하기도 한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후 현재 수사 기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성인지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념이 존재하고,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등 한국 사회 성인지 감수성의 현주소를 지적하기도 한다.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채널A / 9월 17일(571회) 김진의 돌직구쇼



초등학생 형제(10살, 8살)가 원격 수업을 듣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돌봄노동은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진행자가 “원격수업에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먹었다는 건데, 오늘 서울 신문 보도에 따르면, 000 기자, 이 두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엄마가 있었다면 두 아이들이 불이 나서 지금 전신 40% 화상, 이런 정말 안타까운 부상을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는 형제를 학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왜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을지 좀 아쉽군요”와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이후 해당 가정이 이혼가정이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혼가정으로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자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경위 설명만 듣고 자연스럽게 엄마의 행방을 묻고, 엄마가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는 육아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KBS2 / 8월 19일(182회) 제보자들



“지난 5월 이곳에서 문지마 폭행이 있었죠”라며 서울역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건을 ‘문지마 폭행’으로 소개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법제도적으로는 ‘무차별 범죄’로 명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하는 데에 성별이 영향을 미쳤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해 ‘무차별 범죄’로 보도한다면 사회의 젠더권력 문제나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지점이 사장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외모에 대한 평가

TV조선 / 9월 9일(1825회) 신통방송



진행자: (정 본부장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패널: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외모가 너무 더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제 감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짧게 커트도 하시고.
 진행자: 짧게 커트하시고.
 패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정직감, 또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
 영웅, 코로나 여전사라고 불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인 차관급으로 승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패널이 정은경 청장의 외모를 평가한다. “외모가 너무 안 좋아지신다”, “머리 감을 시간이 없다” 등 외모 평가를 이어가며 정은경 청장의 과거 모습과 최근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이 코로나 영웅, 여전사라고 불리게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정과 성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커트를 했다”, “머리 감을 시간이 없다” 등 외양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발언으로 정 청장의 승급을 설명한 것이다. 정 청장이 걸모습을 꾸미지 않았기에 신뢰감과 정직감을 준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걸모습을 꾸미는 여성의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편견으로 연결된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품평은 (꾸미든, 꾸미지 않든) 여성 근로자에게 외모 압박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03 나가며

이번 모니터링의 양적분석은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다. 작년 7월, 25개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는 여성 24%(76명), 남성 76%(24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이 등장했는데, 올해 9월 모니터링에서도 여성 21.3%(71명), 남성 78.7%(262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그중에서도 올해와 작년 모두 50대 남성이 전체 출연진의 1/3이라는 결과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중장년 남성들의 장임을 보여준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50대 남성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왜 문제일까?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성비 재현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질 때 지식, 정보, 공적인 것이 중년 남성의 역할로만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다. 지식, 정보, 정치는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시각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남성이 과대 대표되었을 때 남성의 시각이 시사를 다루는 보편이 되기 쉬우며, 남성중심적 주장과 의견이 대표성을 지닌 보편적 의견으로 다뤄지게 된다. 유네스코 기준(Media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은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원칙으로 사회 구성원, 인간의 경험과 행위, 시각과 관심을 재현함에 있어 성별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랜덤 선택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콘텐츠에서 재현된 여성과 남성의 비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정보원의 남성과 여성 비율, 전문가·대변인·일반인 등으로 등장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율,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에 재현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여성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내용의 비율, 여성과 관련된 주제가 주요 시간대 혹은 인쇄매체의 주요 섹션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비율 등에서 균등한 성비 재현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중장년 남성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때, 어느 집단의 의견이 축소·배제되는지는 출연자 성별 연령대 분석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30대 이하 청년은 남녀 모두 합해 14.5%만 등장했다. 또한 40대가 넘어 가면서 급격한 성비 차이를 보여 40대에는 남성이 3배 더 등장했지만 50대에서 들어서면 여성은 23명, 남성 114명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19년 모니터링에서도 50대 남성이 1/3을 차지할 때 60대 이상 여성은 2명 등장했다. 청년 세대와 중년 여성은 공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장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소수로 등장하는 중년 여성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본인의 직위와 능력과 관계없이 외모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정은경 청장은 ‘외모를 꾸미지 않아서’ 신뢰감을 준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는 업무와 관계 없는 외모에 대한 평가이기에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외모를 꾸미는 여성’에게는 신뢰감을 갖기 어렵다는 여성 비하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에 문제적이다. 코로나 방역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 검소한 옷차림에 대한 평가는 성별을 불문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으나 여성 정치인을 비롯한 여성 유명인의 능력보다 외적인 모습을 부각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여성의 외모를 칭찬, 비난, 평가하는 모든 행위는 여성들이 본인의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외모를 신경 쓰게 하는 외모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니터요원	
방송사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 tvN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2020년 월 일() : - :

출연자 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이름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직업	① 언론인(기자, PD 등) ② 비평가/평론가 ③ 국회의원 ④ 교수 ⑤ 변호사, 검사, 판사 ⑥ 공무원 ⑦ 경찰, 형사 ⑧ 방송인/전문진행자 ⑨ 개그맨/코미디언 ⑩ 배우 ⑪ 가수 ⑫ 모델 ⑬ 학생 ⑭ 작가 ⑮ 자영업자(사장/대표 포함) ⑯ 일반시청자 ⑰ 요리사/요리연구가 ⑱ 상담사 ⑲ 주부 ⑳ 운동선수 ㉑ 의사 ㉒ 회사원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⑳ 기타_____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차별적 내용					
방송사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프로그램명					
방영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모니터링 지표

성평등적 내용		성차별적 내용	
<p>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p>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p>성희롱/성폭력 정당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p>외모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p>성적대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거부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인 : 이유림 | 편집인 : 양진희 | 편집 : 최복경(에디팅), 김유민(서클), WCA(이성준(동국), 김우·김수아(서울대)의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팀(동국대), 김수·김수아(서울대)의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팀(동국대))
전화 : 02-3705-6089 | 팩스 : 02-3705-6020 | 홈페이지 : www.seoulwca.or.kr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기관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발행처 : 서울 WCA | 주 소 :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 1가길 20